

세계연합신문  
모바일 보기

제1330호 (2023년 12월 11일 월요일)



대표전화 : 1533-1545

## 與 ‘서울 6석’ 분석에 발칵…비주류 “지도부 책임져라”

지도부 “최악 가정, 신빙성 낮아” 진화…이준석 “정량분석시 더 나빠”



국민의힘이 윤재우 원내대표와 이만희 사무총장, 유의동 정책위의장이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국민의힘이 내년 총선 판세를 자체 분석해보니 서울 49개 지역구 중 6개에서만 우세를 보인다는 결과가 8일 공개되면서 당내 동요가 커지고 있다.

당 사무처는 최근 이런 내용의 판세 분석 보고서를 작성해 김기현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에 보고했다고 당 관계자들은 전했다.

그는 “후보도 정해지지 않아 지역구 여론조사를 해본 적은 없다”며 “그동안 언론에 발표된 정당별·지역별 지지율 등을 기본으로 전반적인 동향을 설명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전날 인요한 혁신위원회가 사실상 ‘빈손’으로 활동을 조기 종료한 데 이어, 이날 판세 분석 결과까지

의힘 의원들의 글이 잇달아 올라왔다.

하태경 의원은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 후 충분히 예견된 결과”라며 “그런데도 혁신위를 방해하고 좌초시킨 당 지도부는 도대체 무슨 배짱인지 모르겠다”고 썼다.

이어 “나아가 관세 보고서 감추기에만 급급하다. 성적 표를 숨긴다고 성적이 사라지니”며 “당이 죽든 말든, 윤석열 정부가 망하든 말든 혁신을 외면한다면 우리 당은 결국 영남 자민련으로 더 쪼그라들 것”이라고 쏘아붙였다.

성일종 의원은 “당이 위기다. 혁신의 기회를 놓치면 당의 생존이 위태로울 수 있다”며 “김기현 대표와 최고위의 결정에 국민 기대가 크다는 걸 잊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김미애 의원은 “빈손 혁신위의 책임은 혁신위를 벌죽 시킨 김기현 대표에게 있다.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달라”고 했고, 최재형 의원은 “우리 당 안일함이 매우 걱정스럽다. 당 지도부는 대책으로 답하라”고 촉구했다.

허은아 의원은 “서울뿐 아니라 수도권 전체가 초토화 직전이다. 애써 부정한다고 현실이 달라지지 않는다”며 “지금이라도 현실을 직시하고 용산에 할 말 해야 한다. 몇몇 중진이 험지 간다고 될 문제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준석 전 대표는 BBS 라디오에 출연해 “이 자료는 정성적 분석을 한 것이다. 정량적 분석만 하면 이것보다 더 나쁘다”며 “여러 가지 여론조사를 다 참조했을 때 지금 우세를 확신할 수 있는 곳은 (서울에서) 4곳 정도”라고 했다.

이 전 대표는 이어 “경기도 지역에서 나오는 조사 결과들은 너무 절망적이기에, 제가 알고 있는 대로라면 분위기 좋게 보이려고 유선전화 비율을 많이 섞을 것”이라며 “(비례대표가) 병립형 제도로 가면 지난번 (민주당) 180석 같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 김형민 기자

## 이만희 “지역구 여론조사 안해 신빙성 없어” 진화…이준석 “정량분석시 더 나빠”

분석 결과 서울에서 우세인 지역구는 강남갑·을·병, 서초갑·을, 송파을 등 6곳뿐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 여권이 참패한 지난 2020년 21대 총선에서 국민의 힘 전신인 미래통합당은 서울에서 강남갑·을·병, 서초갑·을, 송파갑·을, 용산 등 8석을 확보했는데 내년 총선에서는 이보다 더 적은 것이다.

지도부는 이런 판세 분석이 구체적인 여론조사를 바탕으로 한 정확한 내용은 아니라며 진화에 나섰다.

총선기획단장인 이만희 사무총장은 “최악의 경우, 경합 지역을 포함해 모든 지역에서 다 진 것을 가정한 것”이라며 “전혀 신빙성을 두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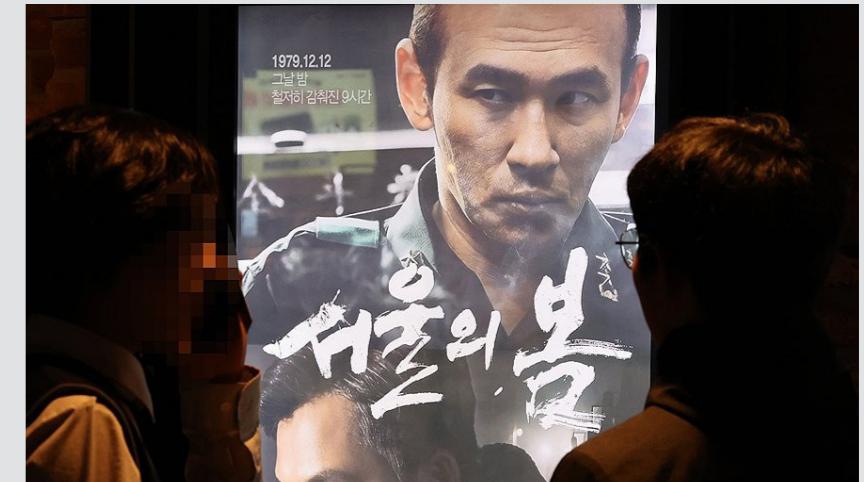
알려지자 당은 크게 술렁이고 있다.

이용호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강서 선거 참패의 충격은 어느새 잊혀지고, 당 지도부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강서 패배 이전으로 돌아갔다”며 “책임져야 할 사람의 책임지지 않는 모습에 실망한 국민들은 자꾸만 우리 당을 떠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이제 당 지도부가 더 이상 시간 끌지 말고 혁신에 응답해야 할 차례”라며 “당 지도부는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한 명확한 비전을 제시해주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페이스북에는 ‘당 지도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국민

### Photo News



‘서울의 봄’ 600만명 돌파…천만 영화 향해 질주

흥행 가도를 달리는 영화 ‘서울의 봄’이 9일 관객 600만명을 돌파했다. 배급사 플러스엠 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서울의 봄’은 개봉한 지 18일째인 이날 새벽 누적 관객 수 600만명을 넘어섰다. 이번 주말을 지나면서 700만명을 돌파할 것으로 점쳐진다. 극장가에서 이 영화가 ‘범죄도시 3’에 이어 올해 두 번째 천만 영화에 등극할 것이라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

## 민주 “일본, 위안부 소송 패소에도 뻔뻔한 태도…尹 굴종외교 탓”

더불어민주당은 일본 정부가 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낸 2차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패한 뒤에도 무대응 원칙으로 일관하는 것과 관련, 9일 “윤석열 정부는 굴종 외교 기조를 버리고 일본 정부에 당당히 대응하라”고 촉구했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일본 정부가 저렇게 뻔뻔한 태도로 맞받아치는 것은 그동안 윤석열 정부가 보여온 대일 굴종 외교 때문”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앞서 서울고법은 지난달 23일 이용수 할머니와 고(故) 곽예남·김복동 할머니 유족 등 16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소송 항소심에서 일본이 불법행위에 따른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했고, 일본 정부가 상고 기한인 이날 0시까지 상고장을 내지 않아 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이와 관련,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상

은 전날 해당 재판에 대한 무대응 원칙을 재확인하며 “한국 측에 적절한 조치를 강구할 것을 요구하고 싶다”고 말했다.

권 수석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의 전쟁 범죄에 면죄부를 주고 오히려 앞장서서 과거사를 덮으려 하니 일본 정부가 ‘적절한 조치’를 요구하는 해괴한 일이 벌어지는 것”이라고 쏘아붙였다.

이어 “윤석열 정부는 피해자들이 피눈물 흘리며 싸워서 만들어 낸 승소라는 결과를 ‘대일본 굴욕외교’로 또 다시 좌절시킨다면 국민은 물론 국제사회의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 수석대변인은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는 사법부의 판결 취지를 다시 상기하고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로부터 진정성 있는 사과와 제대로 된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일본 정부에 당당하게 대응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 송원기 기자

**고객의 마음에 웃음을!**

**SK가스가 드리겠습니다**

국내 LPG산업의 선두에 안주하지 않고 21세기의 끊임없는 도전에 맞서 전진하는 SK가스가 잊지 않고 실천하는 것은 고객만족! -  
SK가스는 국내 최고의 청정에너지 회사.  
동아시아 에너지 메이커로의 Vision을 갖고  
환경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을 실천하겠습니다.  
쾌적한 환경을 위하여 World Best를 추구하는  
SK가스 -

TEL: (02)8200-8114 FAX: (02)8200-8118  
Homepage : <http://www.skgas.co.kr>

# '전현희 표적감사 의혹' 유병호 공수처 출석…“시간끌기 아냐”



공수처 들어서는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의 사퇴를 압박하기 위해 ‘표적 감사’를 주도한 의혹을 받는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출석했다.

공수처가 지난 9월 감사원에 대한 압수수색으로 수사를 본격화한 지 약 3개월 만이다. 유 사무총장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의 피의자 신분이다.

유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9시 50분께 정부과천청사에 도착했다. 그는 ‘공수처 소환에 모두 불응해 비판이 있었던’ 질문에 “그거야 (공수처) 통보 방식 자체가 위법이었다”고 말했다.

유 사무총장은 ‘시간끌기라는 지적이 있다’는 말에는 “그런 것 없다”고 답한 뒤 곧장 조사실로 들어갔다.

공수처 특별수사본부(이대환 부장검사)는 유 사무총

## 조민 측 “입시비리 혐의 인정하지만 검찰 공소제기 무효”

### “도주 우려 없는데 늦게 기소”…검찰 “공소권 남용 아냐”

조국(58) 전 법무부 장관 팔 조민(32)씨가 입시비리 혐의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검찰의 기소는 무효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씨 변호인은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 심리로 열린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사건 첫 공판에서 이같이 밝혔다.

변호인은 “검찰이 허위 작성 서류를 행 사한 부분에 대해서만 기소했는데, 그런 혐의는 인정한다”면서도 “이번 공소 제기는 절차상 무효로 공소기각 판결을 구한다”고 요청했다.

변호인은 “조씨가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과 부산대 의전원에 지원한 시점이 각각 2013년 2월, 2014년 6월인데 기소는

올해 8월이 끝나니”며 “조씨가 도주한 것 도 아니고 추가 조사를 받은 것도 아닌데, 검찰이 위법한 의도로 소추권을 신속하게 행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당초 조씨의 부산대 의전원 부정지원 혐의의 공소시효는 2021년 6월 10일 만료 예정이었지만 공범인 어머니 정경심(61) 전 동양대 교수가 관련 혐의로 기소되면서 유죄가 확정된 작년 1월 27일까지 약 2년 2개월간 정지됐다.

검찰은 공소시효 만료를 약 보름 앞둔 올해 8월 10일 조씨를 기소했다.

형사소송법에서 공범이 기소됐을 때 공소시효를 정지하는 목적은 도주한 다른 공범이 뒤늦게 발견됐을 때 처벌하거나 추가 조사하기 위함인데 조씨는 이와 무

### 5차례 소환 불응 끝에 첫 조사…“통보 방식이 위법”

#### 준비된 질문지만 360여쪽…직권남용 혐의 등 추궁

장을 상대로 전 전 위원장에 대한 비위 제보 입수 및 특별감사 척수 과정, 감사 결과 보고서 결재·공개 과정 등에 위법 행위가 있었는지 따져 물을 계획이다.

공수처는 조사에 차정현 부장검사를 투입했다. 제기된 의혹 전반을 확인하기 위해 준비한 질문지만 총 360여쪽에 달하는 만큼 장시간 조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유 사무총장 측에서는 변호사 2명이 입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지난해 7월 말부터 제보를 받아 권익위를 상대로 특별감사를 벌였다. 전 전 위원장의 상습지각 등 근태 관련 의혹, 주미애 전 법무부 장관 이들의 군 특혜 의혹 관련 유권해석 부당 개임 의혹 등이 감사 대상이었다.

감사원은 지난 6월 9일 권익위에 대한 감사 결과 보고서를 공개했다.

전 전 위원장이 직원 갑질로 징계받게 된 권익위 국장의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에 서명하는 등 부적절한 행동을 했고 세종청사에 근무한 89일 중 83일을 오전 9시 이후 출근했다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전 전 위원장은 감사원 감사가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자신의 사퇴를 압박하려는 목적에서 허위 제보에 따라 진행된 것이라며 반발했다.

전 전 위원장은 감사가 진행 중이던 지난해 12월 최재해 감사원장, 유 사무총장, 제보자로 지목된 권익위 고위 관계자 A씨 등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감사 결과 발표 이후에도 주심인 조은석 감사위원이 최종 결수하지 않은 상태에서 감사원 사무처가 보고서를 공개했다며 공수처에 추가 고발했고 더불어민주당과 시민단체의 고발도 이어졌다. 모두 20여건의 고발이 공수처에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을 검토한 공수처는 지난 9월 6일 감사원과 권익위를 압수수색하며 강제수사에 돌입했다. 이후 증거 확보를 위해 감사위원과 유 사무총장의 사무실 등도 압수수색하고 감사원 직원들도 불러 조사했다.

공수처와 유 사무총장은 10월부터 소환조사 일정을 두고 신경전을 벌여왔다. 유 사무총장은 다섯 차례 소환통보에도 감사원 업무와 국회 국정감사 일정, 변호인의 사건 내용 파악 필요성 등을 이유로 불응하다 이날 첫 조사를 받게 됐다.

공수처는 유 사무총장 조사 내용을 검토한 뒤 추가 소환 여부, 최 감사원장에 대한 조사 필요성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 송진영 기자



영풍제지 주가조작 일당

## ‘영풍제지 주가조작’ 주범 도피 조력자 재청구 끝에 구속

‘영풍제지 주가조작’ 조직의 총책 이모

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를 받는 변호사 A씨가 검찰의 영장 재청구 끝에 8일 구속 됐다.

서울남부지법 유환우 영장전담 부장판

사는 8일 범인도피 혐의를 받는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이씨를 승용차에 태워 도피를 돋고 이씨의 휴대전화를 다른 곳에 뒀다.

사기판의 위치 추적을 방해한 혐의 등을 받는다. 검찰은 검거반을 꾸려 이씨의 행방을 쫓고 있다. A씨는 앞서 구속기소된 영풍제지 주가조작 일당 김모씨가 운영하는 코스피 상장사의 사외이사로 재직 중

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달 A씨의 구속영장을 한 차례 청구했지만 법원은 당시 “범죄혐의를 다룰 여지가 있고 도주 및 증거인멸 염려가 없다”며 기각했다.

이후 검찰은 증거와 혐의사실을 보강해 지난 6일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이씨 등 주가조작 일당은 올해 초부터 영풍제지 주식을 총 3만8천875회(3천597만주 상당)에 걸쳐 시세조종 해 2천789억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는 현재까지 주가조작 가담자 8명을 구속기소하고 범인도피를 도운 조력자 등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 곽도현 기자



법정 항하는 조민

## ‘정당한 생활지도’ 교사, 아동학대로 처벌 안 받는다

### 아동학대처벌특례법, 국회 통과

앞으로는 학교에서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 돼도 정당하게 생활 지도를 한 점이

증명된 교사는 아동학대로 처벌받지 않는다는 것이다. 국회는 8일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아동학대처벌특례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조씨는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면서 심경 등을 묻는 말에는 “재판을 성실히 받겠다”고만 답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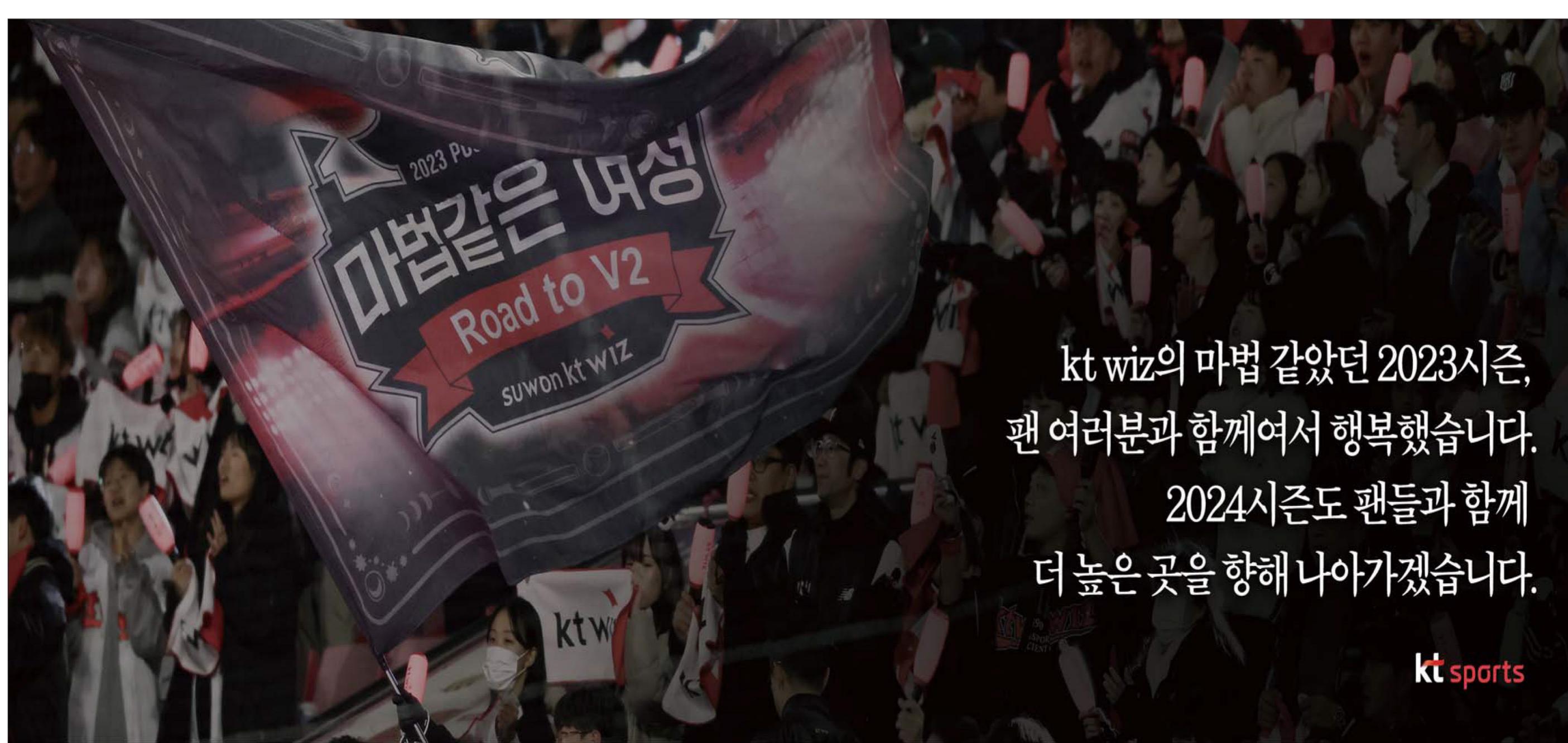
/ 임성주 기자

또 교육 현장의 특수성을 고려해 교육감 등이 의견을 제출하면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동학대 사례를 판단해 참고하도록 했다.

교원이 아동학대 범죄로 신고됐을 경우 이를 수사하는 경찰이나 검찰이 관할 교육감 의견을 의무적으로 참고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개정안은 유아교육법과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의 정당한 교육 활동과 학생 생활지도를 아동학대로 보지 않도록 했다.

/ 신자호 기자



kt wiz의 마법 같았던 2023시즌,  
팬 여러분과 함께여서 행복했습니다.

2024시즌도 팬들과 함께

더 높은 곳을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kt sports









## Recycling

# 사람과 환경을 생각한 삼성전자 반도체의 PET 병 재탄생 스토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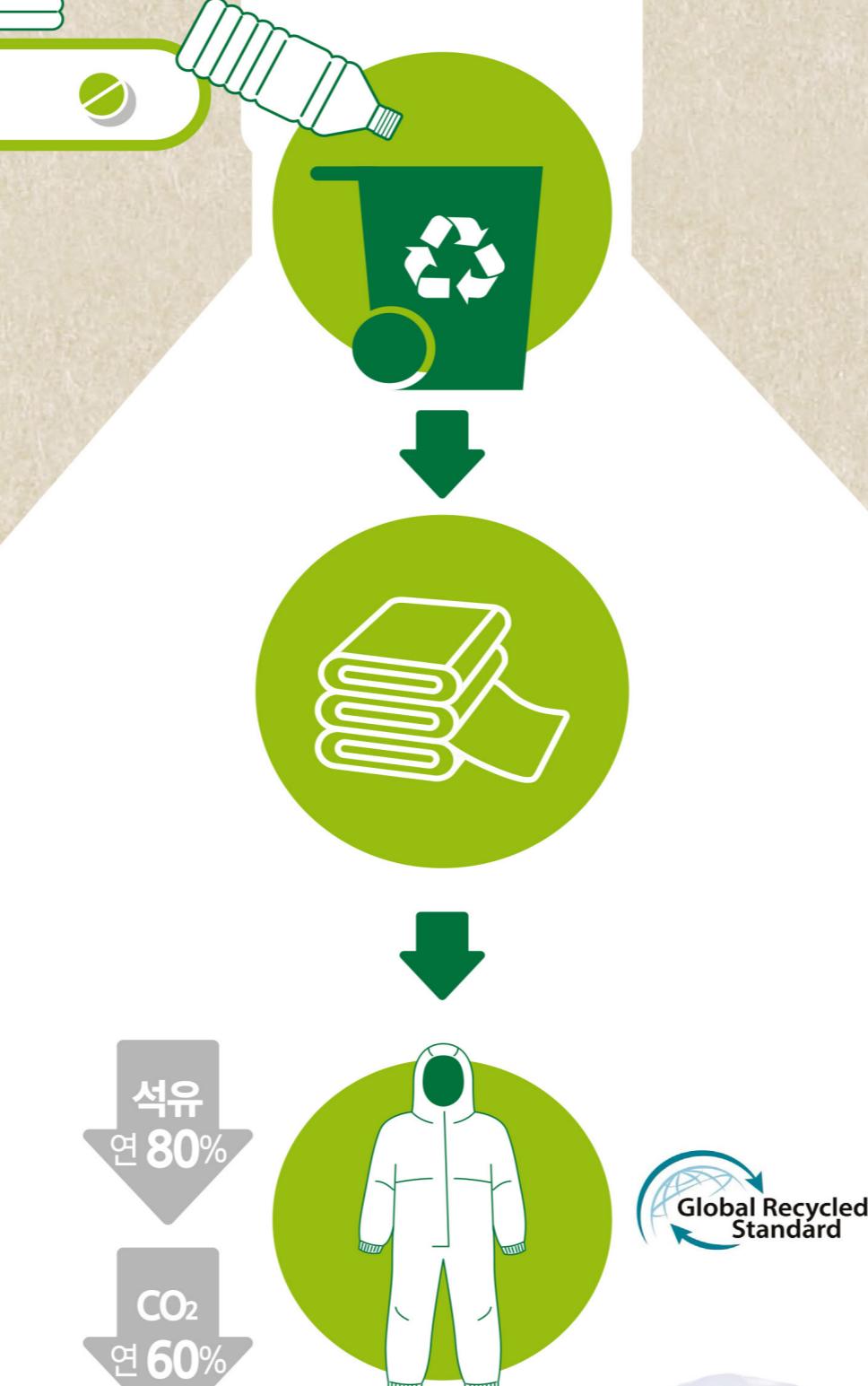
삼성전자 반도체 자원순환센터



삼성전자 반도체 방진복에 담긴  
엄마의 마음

“  
우리 아이들에게 자연의  
가치를 조금이라도  
되돌려주고 싶은 마음이  
아이디어의 시작이었어요.  
”

삼성전자의 반도체 공정이 이루어지는 클린룸에서는 버려진 PET 병을 활용해 만든 방진복으로 탄소 절감에 기여하고 있다. 이는 반도체 분석기술팀 소속 한 임직원의 아이디어에서 시작되었다. 방진복의 소재가 PET 병과 같은 원료라는 것에 착안하여 만든 이 방진복은 석유 80% 절감 효과와 함께 이산화탄소를 60% 저감시키는 결과를 가져다준다. 재활용 원료 함량과 사회적, 환경적, 화학적 준수 여부를 엄격하게 평가하는 국제 인증 GRS(Global Recycle Standard) 획득이 이를 증명한다. 앞으로도 앞치마, 장갑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하여 사용할 계획이다.



\* 1년 동안 사용하는  
방진복을 리사이클  
방진복으로 변경 시

소나무 약 9,000그루  
심은 효과



삼성전자 반도체 임직원들의  
손길로 만든 인형, 달수

“  
PET 병으로 만든 삼성 ESG  
마스코트 달수 인형에는  
분리수거부터 세척까지  
우리의 손길이 담겨 있어요.  
”

삼성전자 반도체에서 PET 병은 귀여운 인형으로 만들어진다. 바로 삼성 ESG 마스코트인 달수가 그 주인공이다. 삼성전자 반도체 임직원들은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에서 PET 병을 깨끗이 세척하여 재생섬유를 뽑아 달수 인형을 제작하고 있다. 눈으로만 보던 캐릭터가 만져도 보고, 안아볼 수 있는 귀여운 인형으로 재탄생한 것이다. PET 병으로 만들었다는 게 믿기지 않을 만큼 뛰어난 품질을 자랑하는 달수 인형은 많은 임직원의 사랑을 받으며 ESG 전도사의 역할을 톡톡히 수행하고 있다. 앞으로 삼성전자 반도체에서는 계속해서 혁신적인 리사이클링으로 환경과 사람을 생각하는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할 예정이다.





서울Winter페스티벌

WINTÄ

2023.12.15.(금)  
~2024.1.21.(일)

환상과 상상을 오가는 빛의 예술이 서울을 아름답게 물들입니다.  
직접 보면 더 빛나는 감동, 놓치지 마세요.

세종로 자정의 태양(12.31~1.1)

보신각(소리의 빛) 제야의 종 타종행사(12.31~1.1)

DDP(빛의 혼합) 서울라이트 DDP(12.21~31), 서울콘(12.30~1.1)

열린송현 녹지광장(자연의 빛) 송현동 빛 축제(12.15~1.21)

광화문광장(시공의 문, 시공의 달) 빛초롱축제(12.15~1.21), 광화문광장마켓(12.15~1.21),  
서울라이트 광화(12.15~1.21)

청계천(하늘의 빛) 빛초롱축제(12.15~1.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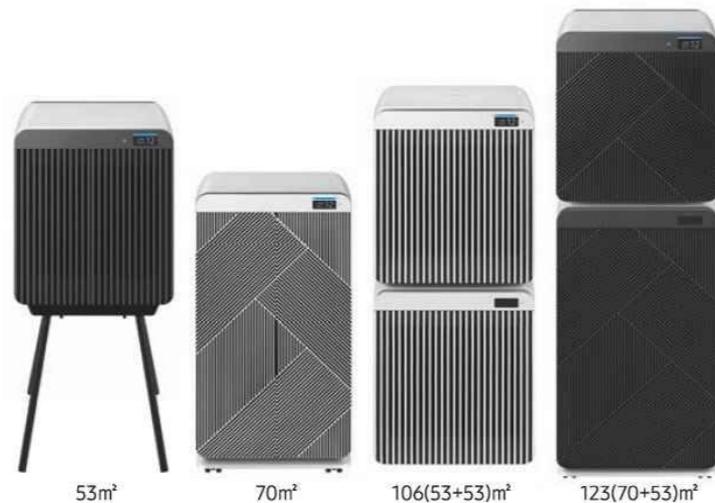
서울광장(빛의 눈이 내리는 서울광장) 빛초롱축제(12.15~1.21), 서울광장 스케이트장(12.22~2.11)

문의 120다산콜



**SAMSUNG**

“ 다시 찾아온 겨울철 고농도 미세먼지, 전국이 ”  
**비스포크 큐브 에어의 영향권에 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AI로 실내 공기질까지 학습해  
똑똑하게 관리해주는  
**BESPOKE 큐브™ Air**

\* 맞춤설정 AI+ 학습된 실내의 공기질 데이터를 기반으로 제품이 깨져 있을 때에도 10분마다 제품 내 센서 동작 및 공기질을 예측하여 미리 ON 동작 · 실외 공기  
질은 지역별 공기질 측정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므로 실 사용 환경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한국 표준 협회 주관 AI+ 인증 취득 \* BESPOKE AI+ 기술에 대한 제품  
소프트웨어 품질을 인증 취득 (한국 국제 표준 ISO/IEC 25025:2016) \* BESPOKE AI+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최초 1회 SmartThings에서 인공지능  
설정으로 설정 필요 · SmartThings는 지원 환경 및 사용 방법에 일부 제한이 있음 (자세한 사항은 상상당문 참조)

**가전을 나답게.**

## 내달 출범 전북특별자치도 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

### ‘재정 특례 7년 연장’ 세종특별자치시 특별법 개정안도 가결

전북 지역 최대 현안 법안인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안이 8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개정안은 내년 1월 18일에 출범하는 전북특별자치도가 중앙정부 권한을 일부 넘겨 받아 여러 정책을 펼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고 있다.

개정안은 전북특별자치도의 비전인 ‘글로벌 생명경제 도시 전북특별자치도’의 원활한 개발을 위한 종합 계획 수립, 농생명산업 육성을 위한 농생명산업지구지정 및 지구 내 농업 진흥지역 해제 권한 이양 등을 골자로 한다.

전통문화 본류라는 강점을 활용하는 ‘문화산업진흥지구’를 통한 유무형 K-콘



전북특별법 개정안 설명하는 김관영 전북지사

텐츠 지원센터 설치, 전문인력 양성 특례 등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또한 고령친화산업, 이차전지, 새만금 고용특구, 특구·지구 내 외국인 특별체류

등 특례도 반영돼 전북 지역이 국가 테스트베드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의 시행 시기는 1년 뒤로, 2024년에는 특례 실행을 위한 준비 기간을 거

친다.

한편, 세종시의 안정적인 세입 기반 유지를 위해 재정 특례를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세종시에 교부하는 보통교부세 및 보통교부금의 보정 기간을 2023년에서 2030년까지 7년 연장하는 것이 골자다.

이를 통해 인구 증가와 대규모 기반 시설 건립 등을 위한 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학교 신설에 따른 부대 경비 증가 등 교육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다.

/ 송진영 기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인천 옹진군 백령농협을 방문해 고향사랑기부제에 동참하고 있다.

### 외국인 체납자 증가 김해시, 급여·전용보험·차량 압류

#### 2천900여명·14억 체납…시 “체납 발생 후 출국 가능한 점 개선해야”



다국어 지방세 정보 책자 배포

경남에서 외국인 수가 가장 많은 김해시에 체납자들도 늘어나자 시가 이들의 급여와 전용보험을 압류하는 등 강력한 대처에 나섰다.

김해시는 지난 10월부터 11월까지 외국인 체납자 일제 정리 기간을 운영해 이들의 급여와 근로자 전용보험(귀국비용 보험, 출국만기 보험) 등을 압류해 체납세 1억7천여만원을 징수했다고 8일 밝혔다.

시는 일부 공장 밀집지대 등을 중심으로 외국인 체납자 자동차 번호판 34대를 영치하는 등 강력하게 추징했다.

### 인천 고향사랑기부 참여 시들

#### “답례품 발굴 등 활성화 모색”

올해 전국적으로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된 이후 인천 출향민들의 기부 참여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올해 1~10월 고향사랑기부금 현황 등에 따르면 인천은 이 기간 모금액이 291590만원(2천906건)으로 전국 17개 시·도 중 16위를 기록했다. 인천보다 모금액이 적은 지역은 세종(7천683만원)뿐이었다.

인천과 같은 수도권인 서울은 5억6천 45만원(7천922건), 경기는 11억961만원(1만2천327건)으로 집계됐다.

다른 광역시의 경우 광주 8억5천673만 원(6천244건), 부산 4억2천825만원(6천 580건), 울산 4억4천907만원(3천956건), 대구 3억8천880만원(5천84건), 대전 2억2천948만원(2천450건)이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자신의 주

소지가 아닌 고향이나 타 지자체에 연간 500만원 한도 내에서 기부하고 세액공제 혜택과 기부액의 30% 이내의 답례품을 받는 제도로,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됐다.

인천시는 강화군·옹진군을 제외한 8개 자치구가 모두 도시 지역이어서 농어촌 지역에 비해 고향사랑기부제 참여도 약한 것으로 자체 분석했다.

또 인천 출신으로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인구가 68만명인데 이 중 48% 정도가 인천과 가까운 경기와 서울에 살고 있어 기부 참여 의사가 떨어지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올해는 제도 시행 첫 해였던 만큼 앞으로 답례품을 다양화해 기부를 활성화하고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고향사랑기금 운용심의위원회를 통해 다양한 주민복리 증진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서종석 기자

### 하남시 학부모들, ‘교육지원청 설립’ 건의문 대통령실에 전달



건의문에는 가평·여주·양평·포천 등 경기도에서 하남시보다 인구가 적은 도시들에 독자적인 교육지원청이 있는 점, 향후 10년 내 하남시 인구가 50만명에 육박하는 점 등 교육지원청 설립이 필요한 이유 등을 담았다.

현재 하남에는 독자적인 교육지원청이 없고 광주하남교육지원청(광주시 소재)이 광주와 하남지역 교육행정 업무를 함께 하고 있다.

도내 31개 시군 가운데 광주·하남을 비롯해 군포·의왕, 화성·오산, 안양·과천, 동두천·양주, 구리·남양주 등 6곳 교육지원청이 복수 지자체의 교육행정을 담당한다.

2017년부터 교육지원청 분리·신설을 요구해온 하남시는 올해 초 이현재 시장이 임태희 도 교육감과 면담하고 교육지원청 신설을 거듭 요청한 바 있다.

/ 신재일 기자

### 충북형 학습플랫폼 다채움 시범수업…현장 적용 점검

충북도교육청이 자체 개발한 충북형 교수·학습플랫폼인 ‘다채움’의 학교현장 적용 상황에 대한 점검에 나섰다.

다채움 시범운영학교인 동화초등학교는 8일 윤건영 교육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다채움을 활용한 시범수업을 펼쳤다.

5학년 과학을 대상으로 한 이날 수업은 학생들이 자신의 감정 상태를 표현하는 이모티콘을 선택하는 것으로 출석 체크한 뒤 ‘채움클래스 수업방’에서 수업내용을 살펴보는 것으로 시작했다.

수업은 학교급별, 교과별 문제와 다양한 교육자료, 평가지 등을 갖춘 ‘AI와 카이브’의 문항과 콘텐츠를 이용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교사는 수업을 하면서 학생들의 학습 상황을 누적해 저장하는 기능이 있



지 다채움의 학교 현장 활용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동화초의 한 교사는 “학생들이 디지털 방식의 수업에 생각보다 빠르게 적응하고 있다”며 “교사들도 다채움을 활용한 수업 방법 등을 연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채움은 충북도교육청이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의 교수·학습 통합 플랫폼으로, 학생들의 학습수준 진단, 맞춤형 학습추천, 학습이력 관리 등이 가능하고 초등학교 1학년~고등학교 1학년의 학습을 지원하는 콘텐츠가 텁재돼 있다.

충북도교육청은 내년 3월 다채움을 개통해 도내 모든 학교에 보급하기 위해 지난 10월 말부터 30개 초중고를 시범학교로 운영하고 있다.

/ 김유정 기자

# 미래, 같아요

다같이 더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는 미래 가치 만들기,  
LG가 함께하겠습니다.

LG



NH농협금융

# 스타트업이 성장하도록, NH가 손을 보탠다

기술력이 있어도, 잠재력이 있어도,

투자가 어려운 스타트업에겐 금융의 손길만큼 절실한 것이 또 있을까요?

NH농협금융은 오픈 비즈니스 데이와 디지털 챌린지를 통해 스타트업에게 금융 지원은 물론, 다양한 교류 및 협력을 지원합니다

스타트업이 안정된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NH농협금융이 손잡고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NH농협금융



## 4년만에 美관객들 만난 송강호 “할리우드 진출은 후배에 양보”

LA 아카데미영화박물관, 한달간 송강호 회고전…‘기생충’ 등 상영



미국 LA 아카데미영화박물관에서 팬들에게 사인해주는 송강호

“4년 만에 여러분께 이렇게 인사드리 게 돼 정말 영광스럽고 기쁩니다.”

7일(현지시간) 밤 미국 로스앤젤레스(LA) 아카데미영화박물관에서 현지 관객들과 만난 배우 송강호는 이렇게 첫인사를 했다. 이 자리에는 아카데미 시상식을 주관하는 아카데미재단이 마련한 것이다. 재단은 아카데미영화박물관에서 이날부터 내년 1월 13일까지 약 한 달간 송강호의 주요 작품 13편을 상영하는 회고전을 열면서 그를 현지로 초청해 팬들이 직접 만나볼 수 있게 했다.

이날은 첫 작품으로 ‘기생충’을 상영했다고 얘기하고, 배우들이 연기를 하기 가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정답은 가장 개인적인 것에서 나온다고 생각한다”며 “나만의 창의적인 모습이 진정으로 봉 감독이 원하는 바가 아닌가 생각하면서 쭉 연기를 해왔다”고 설명했다.

봉 감독이 연출한 할리우드 영화 ‘설국 열차’에 출연했던 경험에 대해서는 “유명한 배우들이 많이 출연했고, 그들과 함께하면서 신선한 에너지를 얻었던 작품”이라고 회상했다.

그는 “흔히 봉 감독이 디테일하고 섬세하다고 얘기하고, 배우들이 연기를 하기 가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정답은 가장 개인적인 것에서 나온다고 생각한다”며 “나만의 창의적인 모습이 진정으로 봉 감독이 원하는 바가 아닌가 생각하면서 쭉 연기를 해왔다”고 설명했다.

‘기생충’으로 아카데미 시상식 무대의

주인공이 됐던 순간에 대해서는 “정말 언어를 뛰어넘어, 인종과 문화를 뛰어넘어 전 세계 관객들과 같이 공감할 수 있다는 것을 실제로 경험했고, 진정한 예술의 가치를 실감한 것이 가장 고무된 점이었던 것 같다”고 돌아봤다.

앞으로의 계획으로는 “꾸준히 영화를 하겠지만, 지금 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나 여러 채널을 통해 콘텐츠의 소통이 너무나 다변화한 세상이기 때문에 내년 5월쯤 (출연작인) OTT 드라마가 한 편 공개될 것 같다”고 밝혔다.

내년 3월 열리는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수상 기대작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독일의 빈 벤더스 감독이 일본에서 찍은 영화 ‘페페트 레이즈’와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의 일본 영화 ‘괴물’을 꼽았다.

이어 그는 “(아카데미에 출품한) 한국 대표작으로 ‘콘크리트 유토피아’라는 영화가 있는데, 그 영화도 굉장히 역동적이고 새롭고 힘 있는 영화”라고 소개하며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당부했다.

/ 김희성 기자



에이티즈, 정규 2집 발표

## 에이티즈, 영국 앨범차트 ‘톱 100’ 2위 올라

BTS 정국은 영국 싱글·앨범 차트서 5주째 ‘롱런’

그룹 에이티즈의 정규 2집 ‘더 월드 에피소드 파이널 : 월’(THE WORLD EP. FIN : WILL)이 영국 오피셜 앨범 차트 ‘톱 100’에서 2위에 올랐다.

정국은 영국 오피셜 싱글 차트 ‘톱 100’에서도 타이틀곡 ‘스탠딩 넥스트 투 유’(Standing Next to You·74위)로 5주 연속 이름을 올렸다. / 조형철 기자



김완선, 히트곡 담은  
베스트 리메이크 앨범 발표

가수 김완선이 7일 베스트 리메이크 앨범 ‘8 페이보릿 송즈’를 발표했다고 소속사 KWSunflower가 밝혔다.

이번 앨범에는 ‘가장무도회’, ‘나만의 것’, ‘빼애로는 우릴 보고 웃지’, ‘리듬 속의 그 춤’, ‘오늘밤’ 등 세대를 아울러 큰 인기를 누린 히트곡 8곡이 담겼다.

김완선은 이 곡들을 tvN 예능 프로그램 ‘댄스가수 유랑단’과 단독 콘서트 ‘2023 김완선 뮤직(MUSIC)’에서 선보인 버전으로 재해석했다. / 최희진 기자

## 라미란 “소시민의 보이스피싱 조직 소탕 작전…통쾌함 줄 것”

영화 ‘시민덕희’ 주연, 내년 1월 개봉

“실크를 바탕으로 한 영화라는 이야기를 듣고서 대본을 읽었어요. ‘정말 이렇게 했다고?’ 하는 생각이 들면서 깜짝 놀랐어요.”

박영주 감독의 영화 ‘시민덕희’ 주연 배우 라미란은 7일 광진구 롯데시네마 건대입구에서 열린 제작보고회에서 시나리오를 처음 봤을 당시를 떠올리며 이렇게 말했다.

다음 달 개봉하는 ‘시민덕희’는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를 당한 평범한 소시민 덕희(라미란 분)가 잃어버린 돈을 직접 찾기 위해 중국 칭다오로 가게 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다. 덕희에게 돈을 뜯은 사기범 재민(공명)이 다시 전화를 걸어 온 게 실마리가 된다.

박 감독은 2015년 발생한 실화에서 영



감을 받아 작품을 구상하게 됐다. 그는 “특별한 능력을 갖춘 사람이 아닌, 평범한 시민이 영웅이 되는 실화에서 굉장한 힘을 느꼈다”면서 “(사기를 당한 건) 피해자들 잘못이 아니라고 진심을 담아 위로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라미란 역시 “이 이야기를 영화로 보면 통쾌할 것 같았다”며 “저는 누구보다

평범한 사람�이기 때문에 역할을 잘 표현할 수 있을 거라고도 생각했다”고 말했다.

덕희의 보이스피싱 조직 소탕 작전에는 많은 ‘동료’들이 투입된다.

덕희와 같은 세탁공장에서 일하는 봉립(염혜란), 그의 동생으로 중국에서 택시 기사로 일하는 애림(안은진), 아이돌

‘훔 마스터’ 출신 숙자(장윤주) 등이다.

염혜란은 극 중 중국어와 엔비 사투리를 구사해야 해 교과서를 펼쳐놓고 기초부터 공부했다고 한다. 촬영장에서도 구석에서 연습을 계속했다.

라미란과 드라마 ‘나쁜엄마’에서 호흡을 맞춘 안은진은 “영화를 촬영하면서 선배님의 리더십을 잘 알게 됐다. 덕분에 드라마도 잘 찍을 수 있었다”고 떠올렸다.

안은진은 지난해 개봉한 안태진 감독의 ‘올빼미’에서 소용 조씨 역으로 스크린에 데뷔했지만, 촬영 시기는 ‘시민덕희’가 먼저다. ‘시민덕희’가 안은진에게는 첫 영화인 셈이다.

그는 “최근 (내부) 시사회를 통해 영화를 봤는데 풋풋한 신인 시절 얼굴이 담겼더니”면서 “첫 영화라 너무 떨려 언니들에게 도움을 요청했더니 장윤주 언니가 집에 와 1대1 레슨을 해줬다”며 웃었다.

/ 백현영 기자

세계연합신문

[www.wunionnews.com](http://www.wunionnews.com)

회장·발행인 송원기 주소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여의도동) 175

편집인 조영광 대표전화 1533-1545 / 팩스: 0508-9192546

인쇄소 아이피디 E-mail unionilbo12@naver.com

청소년보호책임자 김희진 등록번호 서울, 아53015 서울, 가50142

구독광고문의: 1533-1545 / 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원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www.bitscorp.co.kr](http://www.bitscorp.co.kr)



## 채권도 신한투자증권

변동성 높은 투자환경

주식도 꺼려지고, 예금도 꺼려지는 시장상황

안정성과 수익성을 추구하는 주목할 만한 투자 트렌드, 채권!

국공채, 우량채권도 신한투자증권에서 시작하세요!



알파 앱,  
온라인에서 쉽고 간편하게  
채권 매매하세요

신한투자증권

상담전화 : 1588-0365 | [www.shinhansecom](http://www.shinhansecom)

\* 투자는 금융투자상품<채권>에 대하여 신한투자증권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투자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금융투자상품<채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 채권은 발행사의 신용등급 하락시 원금손실 발생이 가능하고, 발행사의 파산·부도시 원금 100%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투자적격등급은 AAA/AA:A:BBB 각 +,0,- 순으로 구분) \* 채권은 시황 및 경과기간 등에 따라 수익률과 가격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신한투자증권 준법감시인 심사필 제23-0133호(2023년 2월 3일 ~ 2024년 2월 2일) \* 한국금융투자협회 심사필 제23-00363호 (2023년 02월 06일 ~ 2024년 02월 05일)